

# 사역원 청학서의 원문과 대역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간노 히로오미

1.1. 사역원의 만한 bilingual text인 청학서는 만몽 bilingual text인 “滿洲實錄”, “三合語錄”과 함께 귀중한 자료이다. 사역원의 bilingual text는 어느 언어이든 중요하지만, 특히 문법적인 형태가 다양한 교착어인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의 bilingual text는 문법적인 대응 관계를 고찰하는 데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청학서 중에서 특히 만주어의 동사 어미에 관해서 청학서도 포함한 자료들에 나타난 구체적인 만주어의 예문을 자료로 해서 연구한 것으로는 성백인(1958), (1968), (1970)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연히 만주어에 붙은 한국어역, 즉 소위 언해 부분도 참고로 했을 것이다(이하에 이 언해 부분을 “대역”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무릇 언어 연구에 있어서 bilingual text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두 개 언어의 대조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조 연구란 특히 현대어의 경우 연구 대상인 두 개 언어의 전체상이 전부 혹은 대부분 알려져 있을 때 라야만 가능하지만(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조 연구의 대부분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과거의 언어의 경우는 두 개 언어의 모습부터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에 두 개 text의 대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는 사역원 역학서 중 본문과 대역의 대응관계의 유형과 그것이 시사하는 역학서의 자료적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몽학서 중 “捷解蒙語”, 청학서 중 “八歲兒”, “小兒論”, “三譯總解”의 몽한/한몽, 만한/한만 대역 어휘 색인을 작성한 바 있는데(그 중 “捷解蒙語”만은 菅野裕臣(2000)에 발표했다. “三譯總解”는 아직 완전하지 못함), 아직 “蒙語老乞大”, “清語老乞大”는 일부분밖에 손대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간 보고를 하게 되는 셈이다.

사역원 역학서의 본문은 한국인이 작성한 것인지 어떤지의 문제도 있다. “老乞大”의 몽골어, 만주어 본문은 분명히 한국인이 작성했을 것이다. “捷解蒙語”에서도 asaYu-, ayu- 등 동사의 보어로서 탈격이 아니라 여위격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이 작자가 한국인임을 암시한다. 하지만, 대역은 본문이 있는 뒤에 성립되었을 것이다.

1.2. 성백인(1968)은 만주어 형태소 -me의 일곱 개의 alloseme 혹은 “용법”을 열거함으로써 마지막으로 “문법적 의의”를 설정하고 있으며 山本謙吾(1955)는 “문법적 의의”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意義素”를 설정하고 있는데, 필자는 성백인(1968)의 alloseme 혹은 “용법”에 대응하는 것을 이하에 “의미”라고 부르려고 한다. “문법적 의의”든 “意義素”든 성백인

(1968)같은 alloseme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선행해야 됨이 확실하다. 더군다나 필자는 모든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다의적”인 것으로 본다.

그런데 역학서의 본문과 대역의 불일치 중에서는 만주어, 몽골어와 한국어의 언어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 꽤 많다. 그런 차이점으로서 다음 것들을 들 수 있다.

- 1) 소위 형용사는 몽골어와 만주어에서 소위 명사와 함께 Nomen을 이루는데, 한국어에서는 동사와 함께 용언을 이룬다.
- 2) 몽골어와 만주어의 소위 형용사적 Nomen은 그 자체의 형태로 부사적으로도 쓰인다.
- 3) 몽골어와 만주어에서는 동사의 소위 형용사형은 Nomen과 비슷해서 동명사(gerund)적으로도 쓰이고, 또한 finite verb로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만주어에서는 그런 경향이 특히 강하다) 한국어에서는 finite verb, 관형사형, 체언형(gerund형), converb 등의 차이가 뚜렷하다.
- 4) 몽골어와 만주어에 있어서는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에서 서술형 자체가 의문형 대신에 사용되지만, 한국어는 늘 의문형을 사용해야 된다.

이하에 필요할 때, 다음 약호를 쓴다. (명): 명사적 Nomen; (형): 형용사적 Nomen; (形): 형용사(한국어).

대역의 용언에는 다음과 같은 약호를 준다. I: 제 I 어기(소위 -~~o~~ 어간, 잡-/먹-); II: 제 II 어기(소위 -~~o~~ 어간, 잡~~o~~-/먹~~o~~-); III: 제 III 어기 (소위 -~~a~~-/~~o~~-어간, 잡~~a~~-/먹~~o~~-).

그리고 만주어의 Nomen에 붙은 조사 혹은 어미는 어간에 직접 접속한 조사 혹은 어미도 포함시키기로 한다 (abka i와 abkai).

2. 대개 만주어의 형태소 하나에 두 개 이상의 대역이 대응하는 일이 많다. 다음 예를 보라(전부 “三譯總解”에서 뽑았음. 한자 숫자는 권을, 아랍 숫자는 장을, a는 겹면을, b는 뒷면을 뜻함).

mini jalgan abka de bi (四 20b)

내 명이 하늘에 이시니

hūwang g'ai abka de acabume (六 9b)

黃 蓋 하늘의 응하여

abka i boco genggiyen getuken (八 8b)

하늘 빛치 몹아 넓고

abkai muse de aisilarengge kai (八 12b)

하늘이 우리에게 돕는 거시니

abka i baru (九 15a)

하늘을 향하여

abka i jalu dekdehebi (六 3b)

하늘에 7덕 도닷더니

이하에 본문과 대역의 관계를 만주어 — 한국어의 순서로 기재하기로 한다.1)

- 2.1. a. -에/-예/-의/-ㄴ ; -스  
 i/ni —  
 b. -로/-으로/ - , 로

여기에서 만주어의 형태소 하나에 a와 b란 두 개의 의미가 있는지(다의적) 혹은 i가 i<sup>1</sup>-a, i<sup>2</sup>-b란 대응 관계를 가진 동음이의적인 형태소 두 개인지는 대조언어학적인 사실이 말해 주지 않는다.

- 2.2. a. i/ni  
 — 에/-예/-의/-ㄴ ( 단 i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스”도 있음)  
 b. de

여기에서도 한국어의 형태소가 소위 속격과 여격이란 두 개의 동음이의적인 형태소인지 (“-에/-예”가 여격이고 “-의/-ㄴ”가 속격이란 단순한 것이 아님은 사실이다)<sup>2)</sup> 혹은 형태소 하나의 두 개의 의미인지는 (현대 한국어(spoken language)에 있어서 소위 속격 “-의”와 여격 “-에”가 음운상 완전히 일치됨을 참조하라) 이 대응 관계 자체는 말해 주지 않는다.

- 2.3. a. -에/-예/-의/-ㄴ  
 de —  
 b. -에서/-의서/-서

이것은 한국어와 같이 “정지”(a)와 “운동(b)”을 만주어 형태소 de가 구별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 a. -에/-예/-의/-ㄴ  
 de —  
 b. -의계/-ㄴ계// -의// -드려

a와 b의 차이도 순전히 한국어 측의 문제이다. 형태소 de는 animate/ inanimate의 차이가 없다.

- a. -에/-예/-의/-ㄴ ; -스  
 i/ni —  
 b. -∅

이것도 한국어 측에서 속격의 생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1) 이 글에서는 용례의 제시를 생략하고 앞으로 발표할 청학서의 색인에 맡기기로 한다.  
 2)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1998)에서는 “-에”는 처격조사, “-의”는 속격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면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 a. -에/-예/-의/-니/-스  
i/ni —  
b. -이/- ]

이것은 종속절에 있어서 주어로 쓰이는 i/ni 가 한국어에서 주격에 대응하는 것이다.

- 2.4. a. de  
— -에/-의; 에서 (ci에는 “-브터; -오로서;-서브터”도 대응함)  
b. ci

한국어의 “-에서”의 위격적 및 탈격적 성격은 그 형태소의 의미의 하위 구분일 뿐 두 개의 동음이의적인 형태소로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 똑 같이 “-에/-의” 역시 위격과 탈격으로 분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은 대역이 한국어사의 일면을 비추어 주는 예이다.

- 2.5. a. -ba/-be  
“捷解蒙語” — III-사 다, III-사 노라  
b. -juxui-/jüküi-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몽골어의 형태 두 개가 이형태임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대응 관계는 몽골어의 형태소 두 개가 의미상 큰 유사성을 띠어 말해 줄 뿐, 의미 차이에 대한 실마리를 대역은 주지 않는다. 단, -ba/-be의 대역에 “I-다, I-노라, I-도다” 등도 있음은 어떤 실마리를 줄 가능성은 있다.

- 2.6. a. -∅(주어, 보어, 수식어, 병립)  
b. -이/- ]  
-∅(명) —  
c. -릴/-을/-을/-을  
d. -에/-예/-의/-니/-스  
e. -과/-와

이것은 a가 직역이고 b-e는 한국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의하여 가해진 보충적 대역이며 각각 -∅의 “주어, 보어, 수식어, 병립”이란 뜻에 대응하는 것이다.

- a. -이다/-라, -로다  
-∅(명) —  
b. - 인고  
c. -는 /-은

이것은 -∅의 다른 syntactical한 용법, 즉 “술어성(서술/의문)”, “주제성”을 한국어의 형태

론적 수단으로 표현한 것이다.

- 2.7. a. (形) 관형사형 II-ㄴ  
 b. (形) finite verb 서술형 I-다, II-ㄴ 지라, II-니라, II-리라, I-더라, III-사 더라, I-도다 etc.  
 -ㄹ(형) —  
 c. (形) finite verb 의문형 I-느냐 etc.  
 d. (形) converb II-니, II-면, I-거든, II-ㅁ 애, II-니와 etc.  
 e. 副詞 I-게  
 (형) be — (形) gerund II-ㅁ 을

이것은 만주어의 형용사적 Nomen이 가진 syntactical한 여러 기능이 한국어로 다양하게 표현된 것이다.

특히 같이 만주어 동사의 소위 형동사형 -ra/-re/-ro 와 -ha/-he/-ho/-ka/-ke가 한국어의 동사 관형사형, finite verb(서술형/의문형)에 대응하는 것도 소위 형동사형의 syntactical한 기능에 의한 것이다. 또한 형용사적 Nomen+akū, 부정 형동사형 -rakū/-hakū/-hekū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단, rakū/-hakū/-hekū에 대응하는 한국어 “I-지 아니하-”와 “I-지 못하-”의 차이는 순전히 한국어 측의 문제이다.

- ra be — II-를/II-ㅁ 을, I-기를; II-리 줄을  
 -ha be — II-ㅁ 을; II-ㄴ 줄/II-ㄴ 줄을

이것들도 소위 형동사형의 gerund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 (형) de — (形) II-ㄴ 더  
 II-ㄴ 제 II-ㄴ 더, I-ㄴ 더, II-면,  
 -ra de —  
 II-니, I-더니 etc.  
 -ha de — II-ㄴ 제, II-면, III-시면 etc.

이것들은 형용사적 Nomen, 소위 형동사형+de형이 converb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2.8. 만주어의 단어 두 개 이상의 결합이 한국어의 형태소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가 꽤 있다.

- i jakade, ba i jakade — -의게  
 -ra jakade — II-니 (“II-ㄴ 적의, II-러 흘 제”도)  
 -ha manggi — II-니, I-거든, II-면  
 -me dahame — II-므로, III-심으로  
 -ha sême<sup>3)</sup> — III-도 (cf, -ㄹ(명) sême - |라도)

-ha ci ebsi — II-ㅁ 으로부터

이것들은 만주어의 분석적인 형태라고 부를 수 있다(단 이런 대조 언어학적인 대응을 가지고 분석적인 형태의 존재를 주장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그런 계기를 줄 뿐이다). 분석적인 형태는 한국어의 형태소 두 개 이상에 대응할 수도 있다.4)

i jalin — -의 위함, -를 위하여서  
 i jalin de — -의 위함이니  
 i/ni baru — -의/-으로 /-의(명) 향하여 (cf. -의(명) baru -을 향하여)  
 i emgi — -과 함의, -과 혼가지로  
 ume — -ra I-지 말라  
 -ra sé- — I-게 하-, II-려 하-, I-고져 하-  
 -ki sé- — I-고져 하-, II-려 하-  
 -kini sé- — I-고져 하-  
 -mbi sé- — II-려 하-  
 -me bahanarakū — I-지 못하고  
 -ci ojarahū — I-지 못하-

분석적인 형태를 이루는 보조동사 bi-와 o-는 명사적 Nomen, 형용사적 Nomen, 동사의 형동사형에 붙는다.

-의(명) bi — -이다  
 " bihe — -이라도  
 " oci — -니는  
 " ofi — -모로  
 -의(형) bi — I-더라  
 " bici — II-면  
 " bihe — I-더니  
 " bime — II-되, I-고, III-도  
 -의(형) oci — II-니, I-거든, II-면  
 " ofi — II-ㅁ 으로부터, III-서, I-고, II-ㅁ 에  
 " oho — I-더라, II-리라, I-더니  
 " ohode — II-리 착시면  
 " ogoro be — II-ㅁ 을  
 " akū ofi — I-지 아니하여

3) 한글 “ㅡ”로 쓰이는 만주자 e를 津曲敏郎에 따라 é로 전사한다.

4) 분석적인 형태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되지만 당해의 단어의 paradigm에 속하는 형태를 뜻한다(한 단어로 되는 종합적인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국어 “-고 있-”, “-기 때문에”, “-로 해서” 등등, 영어 수동형(be+과거분사), 완료형(have+과거 분사), 진행형(be+현재분사) 등.

동사 부정형:

- hakū bi — I-지 아녀시니
- " ofi — 名 아니라 하고
- " ohode — I-지 못허거든
- rakū bicibe — III 아니허여도
- " oci — I-지 아니하면, I-지 못하면
- " ofi — I-지 못허여, I-지 못허여셔, I-지 못하고, I-지 아니함으로
- " ohode — I-지 못하면, I-지 아니하면, I-지 아닐 썬시니

2.9. 분석적인 형태 중 다음 것들은 극히 주목할 만하다.

- me bisire de — I-고 이실 제, III 이실 제
- me bihebi — III 잇더니
- fi bisire de — I-고 이실 제
- ha bihe — III 잇더니, I-스 더니, I-더니, III-스 거늘
- ha bici — I-고 잇더니, III 이시면, II-면
- hai bikai — III 잇노라

다음 것도 비교하라.

- habi — III 잇노라, III-스 노라, III 잇고, III-스 고, III-스 다, III-시니, I-더니

이런 형태들이 한국어의 “I-고 이시-”, “III 이시-”, “III-시-”에 대응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그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 2.10. -me — I-고, III(따로 “II-라, I-되, I-기롤, II-물” etc.)  
 -fi — I-고, III, III-셔, III-다가 (따로 “II-니, III-시니, II-매)

흔히 -me는 “동시”, -fi는 “선행”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극히 의심스럽다. 아마도 -me와 -fi의 의미 영역이 겹치는 데가 있음을 양쪽의 대역 “I-고”, “III”가 지시하고 있을 것이다(단 “III-셔”는 “선행”설에 유리하다).

- 2.11. a. -ra — I-느, II-ㄴ  
 b. -ha — II-ㄴ  
 c. -mbi — I-다, I-노라 etc.  
 d. -ha — III-스 다, I-다; III-스 노라, I-노라 etc (I-던다, I-더라, I-도다 etc.도)

소위 형동사형으로서의 a와 b에 대체로 “I-느”와 “II-ㄴ”이 대응하는 점(단 -ra에는 “II-ㄴ”도 대응함) 과 finite verb로서의 c와 d의 차이점으로 d에 있어서 “III-시-”가 대응하는

점을 가지고 a/c와 b/d의 차이를 “비과거”와 “과거”란 대립의 반영이라고 일단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시제라기보다는 aspect적인 요소가 강함으로 인하여 만주어와 한국어의 문법 범주가 엇갈림을 보여 주고 있어서 2.9., 2.10.의 문제와 더불어 한국어 측에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sup>5)</sup> (-ø(명령형)- “II-라”이외에 “III-시라” 도 있음을 참조하라. 또한 -ra be/-ha be “II-리 제”와 같이 대역에 시제의 차이가 없음도 참조하라).

- 2.12. -mbi: — II-리, II-리라, - II-리오, II-리시고; II-리니, II-리 거시니  
-ra: — II-리, II-리오; II-리

상기의 형태소들에 -ha에는 못 보는 위와 같은 대역이 대응함을 보니 이 형태소들이 “비과거적인”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 “의도”, “추측” 등 modal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측면의 의미를 따로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지도 고찰해야 된다.

3. 이상은 거의 대부분 만주어와 한국어의 의미가 완전히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인데 더러 불완전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3.1. 동사 — 동사 혹은 형용사(“三譯總解” : girure—붓그리고, girufi—붓쓰려서; girumbi—붓스럽다, 붓그러오니. 또한 gicuke kai—붓그러오리라)

3.2. 한국어에서 흔히 문장을 “I-고”, “II-니” 형으로 길게 잇는 syntactical한 습관 때문에 만주어의 finite verb -mbi, -ø(명령형), 그리고 finite verb로서의 -ha가 “I-고”형에 대응하는 일이 꽤 있다 (비슷한 현상은 “捷解蒙語”에도 보인다).

3.3. 만주어의 사역형이 한국어의 능동형에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

“三譯總解” acabuha—뵈니, acabure—뵈(단 acabure dère—뵈게 하리라, acaburengge kai—만나게 하 거시니)

aisilabumbi sehengge—도으려 하논 거시, aisilaburengge kai—도와 준 거시라(cf. aisilambi—돕 논지라 etc.)

alanabuha—알외니(cf. alanabuha kai—알외게 하엿노라)

amcabufi—쏟아 (cf. amcafi—쏟아 etc.)

다음 것도 참조하라. bucebuci—죽으라 하면

holhobure jakade—엷으라 하니

비슷한 현상은 “捷解蒙語”에도 보인다.

kelelcegtülkü—니를 (cf. kelekü—니를, 니를/니를 etc.)

5) -ra/-mbi와 -ha를 시제로 보는 견해 이외에 aspect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崔東權(1988) 참조. 이 논문을 보내 주신 최동권 교수에게 사의를 표한다). 이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는 따로 발표하기로 한다.



### 3.4.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생각되는 대역이 더러 있다.

guwan gung de—關公을(+gucu araha—벗 삼다)  
 etuku i—옷 너은  
 faksi—시간 저은  
 ganabuha—드리라 보내다  
 arga bodohon jaluka—되 헤아리고 의스 만흔  
 isiname hamime—거의 다드르니 etc.

4. 상기 이외에도 여러 대응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소홀하지 않게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각각의 예를 설명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사역원 역학서는 만주어, 몽골어로서 뿐만 아니라 18세기 한국어의 여러 면을 밝혀 주는 자료로서도 빛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성백인(1958), 滿洲語 動詞活用語尾 -ci, -cibe, -me에 대하여, 「文理大學報」 7.1, pp. 33-42(성백인(1999) pp.689-712에 수록).
- (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pp. 72-102(성백인(1999), pp.649-687에 수록)
- (1970), 滿洲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明大論文集」 3, pp. 257-290 (성백인(1999), pp. 713-767에 수록).
- (1999),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서울, 940 pp.
- 延世大學校 國學研究院(1988), “漢清文鑑” 「韓國語索引」, 弘文閣, 서울, 283 pp.
- 崔東權(1988), 國語와 滿洲語 名詞句 內包文 比較研究 (博士學位 請求論文), 서울, 212 pp.
- 菅野裕臣(1963), 「捷解蒙語」のモンゴル語について, 「朝鮮學報」 27, pp. 65-93.
- (2000), 「捷解蒙語」について, 「捷解蒙語」對譯語彙 索引, 「朝鮮學報」 175, pp. 1-83.
- 山本謙吾(1955), 滿洲語文語形態論, 「世界言語概說 下卷」, 研究社, 東京, pp. 489-536.